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초미의 관심'

이준석 단일화 거부에도
보수진영 지속 추진
국힘 "후보직 외 다주겠다"

D-7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밀리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간의 후보 단일화가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준석후보가 원주 의지를 밝히면서 '후보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의 사퇴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보수진영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26일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며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하여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결심을 꿰뚫어 보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직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 위협까지 한다"고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늘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달려 죽이

겠다는 식으로 협박한다"며 "우리는 더욱 끈기있게 나아갈 것"이라며 완주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이 후보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며 "단일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해달라.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단일화를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지난 23일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정부를 이끌어 가느냐, 정정당당한 단일화, 즉 100%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통합후보를 선출하느냐"라면서 "이 두 선택지밖에 없다"며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측에서 단일화에 대한 화답이 없자,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정정당당하게 겨룰 필요가 있다"며 "100% 국민 개방형 여론조사가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이 후보측이 우려하는 역선택 규정을 배

제한 것으로 이 후보가 어떤 형식을 제시해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경우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뭐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협의할 생각"이라며 단일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문수·이준석 후보간의 단일화가 요구되는 배경은 최근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김문수·이준석 후보간의 지지율 합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서울=김영목기자



29,30일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완주군 지방의원들이 26일 고산면에서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29,30일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전북타임스>

제13회 자연사랑·자연보호 전북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전북타임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에게 그림을 장려하고 예술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정서 안정과 사회성 형성은 물론 창의력과 표현력 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한 삶의 터전에서 순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육 관계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공모 기한 : 2025년 5월 27일(화)~6월 20일(금)
- △ 공모 부문 : 그림(만화 포함)
- △ 입상자 발표 : 2025년 7월 11일(금)
- △ 입상자 시상 : 2025년 9월 13일(토)
- △ 참가 대상 : 전북자치도에 재학 중인 초·중·고학생
- △ 작품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
- △ 용지 규격 : 8절지 크기(B4 용지)
- △ 시상 내역 : 대상(3명)=전북자치도교육감·전북자치도지사상·전북자치도의회위원장
최우수상(4명)=전주시장상(2명)·전주시회의위원장(2명)
우수상(20명)=(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전북타임스신선 대표이사상
특별상(3명)=국회의원상
- △ 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학교별 단체 및 개별 접수)
- △ 접수처 :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진북동) 5층 전북타임스 본사. 문의 (063)282-9601, 9604
- △ 주최 : 전북타임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

권영국 대선 후보, 28일 전북 방문

"평등사회 전봉준정신 잇겠다"

민중노동당 권영국 제21대 대선 후보는 오는 28일 전북을 방문을 앞두고 "평등사상을 열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전봉준정신을 이어받아 불평등 세상 같이였고,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권 후보는 전북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자치도 주요 공약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의료의 중심지 조성 ▲전북을 상용차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새만금을 생명력 넘치는 해양생태관광중심지 육성 ▲농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탈탄소 녹색 사회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홍두깨 같은 윤석열정부는

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순간에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망상가 윤석열의 폭정에 맞서 단호하게 민주주의를 지켰고 나라를 구한 것은 바로 전봉준의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 정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역사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했고 부자감세, 경기후퇴, 자영업과 중소기업 몰락, 물가인상과 민생고, 노동자 불안전고용의 확대, 농업위기, 재생에너지 후퇴와 친원전정책의 부활, 극심한 불평등을 숙주로 하는 극우세력의 준동 등을 보았다"며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2면에서 계속>

새만금 수변도시, 항만배후 특화로 재정비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항 연계 스마트 도시 개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개발공사(사장 나경균)에서 시행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지난 26일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 통합개발계획(변경)은 개발 기본계획과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인허가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일괄 변경한 것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처음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새만금 산단 입주수요 증가와 새만금 신항만이 2026년 개항(2선석)함에 따라 항만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수변도시를 '항만배후+기업지원 특화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에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새만금 신항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항만물류, 연구개발(R&D), 첨단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복합 용지를 배치했고, 신항만 크루즈 계획과 연계한 관광형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의

제안이나, 공모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육상교통과 새만금 호수 수상교통 및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육·해·공 환승센터도 반영하며, 전력공급 시설을 모두 지하화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수변도시 중앙부 2개의 호수와 수로를 새만금 호수와 연결하여 개방하고, 수로 폭을 15m에서 30m로 확대하여 수변공간의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보행자의 수변공간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녹지축과 교통 보행 동선을 계획했고, 수변도시 특성에 맞춘 수변공원 3개소 등 총 32개소의 공원을 건설하기로 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1공구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약 3,550억 원 규모의 2공구 조성 공사를 5월 중 발주할 계획이며, 6월에는 약 700억 규모의 4공구 조성 공사도 발주한다. /김영태 기자

밝은사회, 건강한 사회 전북특별자치도의 행복한 사회

전북타임스와 함께 만들어 나가요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 노블레스웨딩홀5층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타임스

道, 전국 최초 '환매권 10년 장벽' 허문다

소송감사 없는 행정절차 도민·토지재산권 회복 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도가 전국 최초, 소송·감사 없이도 환매 가능 행정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전북도는 환매권 행사기간 지난 토지대상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소송 없는 행정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매권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토지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도로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토지는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기한이 지나면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 또는 감사 의뢰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 도민은 불편과 갈등을 겪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12월 접수된 1건의 민원을 계기로, 법적 환매권 행사기간이 이미 만료된 토지라도 행정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절차를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특히 도는 △고령자 △귀촌인 △법률 이해도가 낮은 주민 등 법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이를 위해 △문서고 등 보존 자료 조사 △항공·위성사진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지자체 유사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다각적인 검토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기한 경과 후에도 공익사업으로 미사용된 토지에 대해 '사후행정 검토'를 통한 환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는 법적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토지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관할 시군에 민원을 신청하면 전북자치도 행정절차에 따라 환매 여부를 검토해 결

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 절차를 통해 2024~2025년 사이 총 3,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해당 사례는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에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한 선도적 행정으로 인정받아, 전북도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마련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홍보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민주노동당 "전봉준 뜻 이어 평등사회 앞당기겠다"

<1면에서 이어짐> 특권 후보는 사회대개혁의 주제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하며,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광범위한 주체들이 앞장설 때 비로소, 사회대개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공공의료의 중심지 조성을 위해 폐교된 서남대에 국립의과대를 설립해 공공의사와 간호사를 배출하는 공공의료의 산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상용차와 미래산업의 중심지 육성 방안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와 트럭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투자하지 않고, 원전에 갇혀 있던 정부의 실책이 문제라며 정부주도로 전북을 미래형 상용차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권영국 후보

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갯벌을 복원하고 바다를 살려 새만금을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고 전북의 어업을 되살릴 뿐 아니라 조력발전 도입으로 새만금 해수유류량을 확대하고, 'RE100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3당과 민주노동당의 산별노조, 그리고 전국의 노동/시민운동 단체가 민주노동당으로 하나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후보 "국방장관 민간 출신 바람직"

집권시 비군인 출신 모병제 시행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며 집권시 비군인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

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중 '군의 문민통제 강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왔다.

이 후보는 "징집병과 기술직약형 전투부사관제" 도입과 관련, "당연히 징병제에 기본을 둔다"면서 "모병제를 시행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이어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돼라는 게 아니다"며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한다"면서도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북한 비핵화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한동훈, 29일 광주서 사전투표·유세

"호남서국힘정치꽃피워" 익판김후보와합동유세관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사전 투표 첫날에 광주에서 투표하고 뵙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이같이 공지하고 "저는 지난 재보선 승리 이후 역전 대승한 부산 급정이 아니라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아 호남에서 어렵게 국민의힘 정치를 하는 동료들과 함께 했다"며 호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치를 호남에서도 꽃 피우겠다"며 호남에서 김



한동훈

문수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당내 친윤계 청산 및 태극기 부대와의 선을 그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동반 유세를 거절했다.

하지만 대선 중반에 들어서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동반 유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주덕진소방, 외국인 유학생 소방안전체험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실습 등 통역과 함께 진행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58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흥미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안전을 넘어, 재미까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장이 됐다.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소방시설 찾기 런닝맨 이벤트 △외국어 통역 등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안전의식을 전달했다.

특히 외국어에 능통한 소방관이 통역과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언어 장벽 없이 모든 참여자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폐소생술 실습에서는 유학생들이 마네킨을 이용해 실제와 유사한 응급처



치 훈련을 마련해 진행했다.

소방시설 찾기 런닝맨 이벤트는 소화기, 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을 신속하게 찾아 인증하는 방식 등의 재미와 유희함을 동시에 누렸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 체험 부스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 소방 안전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주덕진소방서 강봉화 서장은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국제 사회에 '신뢰받는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교육이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교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이지콜 택시 교통약자 투표장 이동 지원

전북자치도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교통약자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 및 본투표 기간 이지콜 택시로 투표장 이동을 지원한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교통약자지원부는 사전투표 기간인 이날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권을 가진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지콜 택시를 매일 4대씩 투입한다.

또 본투표가 실시되는 다음 달 3일은 이지콜 택시 총 8대를 투입해 교통약자 투표권자의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인의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운행을 지원한다.

이연상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김관영 지사, 복지·안전분야 국가예산 확보 총력

통합재활병원 건립사업 등 책임자 소통 예산 반영 건의

전북특별자치도도는 복지·안전분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한 기획재정부 설득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6일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비롯 복지예산과장, 연금보건예산과장, 안전예산과장 등을 만나 2026년도 복지·안전분야 현안을 놓고 예산 핵심 책임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며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는 기재부의 정부예산 심사·편성 시작 전에 전북자치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복지분야에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사업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

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의료물품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9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개 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5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14개 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의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기재부의 예산심사 과정은 정부예산에 담기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 우리도 핵심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사고예방은 조심! 또 조심!

전기 자동차 안전관리 수칙

사고

전기차 사고시 긴급대응

주의

차량 충전시 물기주의

흡연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충전

완속충전보다 잦은충전화재위험 높음

“완-전 통합 비전 행정구 4개 설치·기능 확대”

전주시시민협, 상생발전 발표 통합후8년승진후보자 별도관리정원비율고려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 비전에 대한 행정, 교육, 청년분야 상생 발전 사업으로 행정구 4개 설치 및 기능 확대, 통합 후 8년 승진후보자 명부 별도 관리,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 마련 등 행정 운영 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전주시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 민협의회(위원장 박진상)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한 행정 운영체계 구축 △교육격차 해소 △청년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통합 시 운영 방향을 담은 행정·교육·청년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 4개 설치 및 구청 기능 확대 △완주·전주 현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 마련 △교육지원사업의 완주지역 확대 추진 △청년 정주여건 조성 등 4대 핵심전략으로, 앞서 발표

한 행정복합타운 완주군 조성교, 교통, 농업, 문화·체육·산업, 복지 분야에 이은 마지막 상생발전 비전 발표이다.

우선 통합시의 광범위한 행정구역 (1028km)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접근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4개의 행정구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인사 형평성 확보를 위해 완주·전주 현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을 마련하고, 직급·직렬별 균형 있는 인사 배치를 통해 조직 내 상생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인재육성재단과 협력해 현재 전주에서 운영 중인 교육지원사업을 완주 지역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분야에서는 전주시의 대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인 ‘청춘 별채 (월 1만 원 임대주택)’를 완주 지역의 대학가 및 산업단지 인근에 우선 도입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동시에, 전주시 ‘출향 청년 채용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완주 지역까지 확대해 청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 비전에 대한 행정, 교육, 청년분야 상생 발전 사업으로 행정구 4개 설치 및 기능 확대 등 행정 운영 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사진=전주시>

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과 청년이 살아 있는 도시가 미래가 있는 도시이며 이번 발표는 단순한 통합시 행정에 대한 설계가 아니라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발표했던 분야별 상생발전 비전이 두 지역의 신뢰와 연대의 시작이면서, 광역도시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민 안전지킴이 CCTV 장비 성능 고도화

영상전환 속도·직관성 높여 시민 안전 강화 효과 기대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노후 멀티비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도시 안전 관제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국비 2억4000여만 원을 투입해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멀티비전을 전면 교체했다고 26일 밝혔다.

멀티비전은 관제센터의 핵심 장비로, 전주시 전역에 설치된 4800여 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고화질 대형 디스플레이로 표출해 보다 정밀한 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장비다.

전주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더 빠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멀티비전 교체를 통해 영상전환 속도와 화면 직관

성을 높였다.

또한 새로 설치된 멀티비전은 기존에 운영하던 AI 기반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시스템과 연동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 효율을 대폭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스템 교체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였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전역에 걸쳐 보다 정밀한 안전 사회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800여 대의 CCTV를 실시간 관제하는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월까지 CCTV 관제를 통한 범죄예방 106건, 사건·사고시 738건의 CCTV 영상을 각각 제공하는 등 시민 안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훈련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점검 현장 통제 역량 강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6일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불시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효천지구 백로공원에서 국도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된 대형 싱크홀 사고 상황을 토대로 실시했다.

특히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것으로 긴급 구조 대응과 현장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훈련은 길이 7m, 직경 20m 규모의 싱크홀이 도로에 발생하고, 행인 2명이 고

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고 접수와 동시에 지휘차, 구조공작차 등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인명 구조, 통제단 가동, 2차 사고 방지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구조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훈련에는 전주완산소방서를 중심으로 소방대원, 현장대응단, 교통센터, 통제단원, 산악인력풀 등 총 68명이 참여했다. 훈련에는 지휘차·구조버스·통제단 장비운반차·안전진단차 등 차량 12대가 동원됐다.

훈련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은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히 구축하고, 구조대는 가상의 고립자 수색과 구조, 이송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이번 훈



훈련을 통해 실전 같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빈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대통령선거 행정지원 만전

“취약계층 등 접근성 부족 시민들도 빠짐없이 챙길 것”

전북자치도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주주의의 꽃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행정지원을 주문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6일 양 구청장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한 간부회의 자리에서 오는 29·30일 사전투표와 6월3일 본투표의 일정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우 시장은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 투표와 관련해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시민들도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 참여를 동참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선거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수막 게첩 △사전투표 및 본투표 안내방송 △전광

판, 플래카드 등 활용 홍보 △배너 설치 등을 추진했다.

사전투표와 6월 3일 선거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행정용 게시대뿐 아니라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인근, 체육시설 등에 게시하기도 했다.

시청사 입구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 주변과 오가는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 인근에 투표를 참여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권자가 밀집한 공동주택 등에도 투표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우범기 시장은 “민주주의의 출발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에서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장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도 모든 시민이 투표 참여라는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투표행정을 차질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주학산숲시집도서관, 시시각각 낭독회 성료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학산숲시집도서관에서 시와 음악이 있는 낭독 공연인 ‘시시각각 낭독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날 숲속 낭독 공연에는 백은선 시인과 시와(SIWA) 음악인이 공연자로 나서 ‘상자 속의 노래’라는 주제로 시와 음악의 하모니를 펼쳤다.

백은선 시인은 지난 2012년 ‘문학과 사회’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으며, △가능세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들로 만들어진 필름 △상자를 열지 않는 사람 등의 시집을 출간했다. 또한 시와(SIWA) 음악인은 △2022 EP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등 여러 음악 앨범과 싱글 작품을 다수 만들어낸 전문 음악인이다.

최현정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시를 경험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심미숙 최병용 씨, 전북도 무형유산 신규 인정

토속민요 전승 노력
거문고 기업 계승

세계적인 무형유산도시인 전주를 주무대로 활동해온 토속민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담은 분야의 심미숙씨와 거문고 제작 악기장 최병용씨가 전북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을 받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6일 오후 3시 전주시시장실에서 올해 새롭게 전북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인정된 △전북향토민요 심미숙 △악기장 최병용 등 2명에게 인정서를 교부했다.

전북향토민요(토속민요) 심미숙 보유자는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민요반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제21회 상주전국민요경쟁대회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하는 등 전북향토민요를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심 보유자는 도내에서 민중들이 부르는 노동요와 일상생활에 우리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담은 곡들을 수집·정리하기도 했다.

또한 악기장(거문고) 최병용 보유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악기장 최동식 명예보유자의 아들로, 기업을 이어 2대째 전통을 계승해 거문고를 제작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나날이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세계 무형유산 도시 전주는 앞으로 무형유산 전승과 반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제21회 상주전국민요경쟁대회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정재근 기자

‘전주 기록 사진 전시회’ 6월 5일 개최

6월 5~15일 하안양옥집서
졸업앨범 사진 80여점 전시

전주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15일까지 하안양옥집(완산구 경기전길 67)에서 오래된 졸업앨범 속에 담긴 전주의 옛 모습과 학창 시절의 추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는 ‘전주 기록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체육대회 가장 행렬과 교련대회, 체력장, 요리 실습, 백일장, 동아리 활동, 신체검사 등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사진을 비롯해 전주교와 덕진공원, 풍남문, 종합경기장, 향교, 전통성당 등 전주의 주요 문화 유적지를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 8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 개관 이래 8080여 점의 민간기록물을 수집한 시민기록관은 시민의 삶을 기억하고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면서 “뒤편이 열려보지 않으면 박제된 기억이 되지만 이렇게 사진전을 열어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기증해주신 소중한 자료가 기록자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급식담당자 식재료 안전성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교급식담당자 식재료 안전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 및 가공식품 섭취 증가에 따른 문제를 점검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

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식재료 안전성교육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식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대규모 토석채취사업 등 환경관리 실태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전북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토석채취, 도로

건설, 하천정비 사업 등 20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절·성토 사면의 안정적 관리 여부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이다.

박건우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 도시가스 소외 지역 LPG 배관망 구축

5년간 5천 세대 503억 투입 농촌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연료비 절감·안전 향상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읍면 지역 편리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읍면 소재지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저장시설과 배관망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 소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에너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6개 시군 남원,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7개소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03억 원을 투입해 약 4,980세대의 LPG 배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남원시 인월면과 장수군 장계면은 부지 확보 및 설계를 마치고 올해

3월 착공에 돌입했다. 무주군 안성면과 임실군 오수면 또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어 부안군 진서면과 임실군 관촌면(2027년), 고창군 흥덕면(2028년)에도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규모 LPG 배관망을 통해 기존 LPG 용기 개별 공급 대비 약 30%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83개 마을 5,652세대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 9개 마을에 추가 설치를 진행 중이다.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에너지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농촌은 지금 모내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모내는 보편적으로 5월 25일경부터 시작해 6월 4일까지 1모작 이상이 이뤄진다. <사진=전북농기원>

일년 농사를 시작하는 모내기에 바쁜 농촌

농촌은 지금

전북지역의 농촌은 지금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내는 보편적으로 5월 25일경부터 시작해 6월 4일까지 1모작 이상이 이루어진다. 벼 육묘장에서는 어린모가 햇빛을 받고 물을 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다. 논에서는 트랙터가 다 자란 모를 이앙할 보금자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올해 육묘 기간인 5월 상순의 온도가 평년보다 평균온도 2.9℃, 최저온도 3℃가 낮아 썩티우는 기간이 길어졌고 묘의 성장이 늦어져 이앙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키가 작은 모를 이앙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모는 배유에 양분이 30~50% 정도 남아 있어 본포에서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아 생장에는 문제가 없다. 모내기 바로 전 육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육묘 기간에 따뜻한 조건에서 자라던 모가 갑자기 눈에 들어

가면 외부의 낮은 온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활력이 낮아지고 생육이 떨어질 수 있다. 반드시 이앙 전 2~3일간은 온도가 낮은 밤에 조금씩 환기를 늘려 적응하는 기간을 두어야 초기 생육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또한, 1모작은 이앙 주수를 적게 해야 한다. 새끼는 1주일 간격으로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수를 많이 잡고 이앙할 경우 과번무해져 병해충에 약해 방제 횟수가 늘어 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50~60주 정도의 드문 모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잡초 방제는 초기와 중기제초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눈에 물을 충분히 담수하고 살포해야 하며, 제초제의 선택은 논에서 발생하는 잡초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명서를 준수, 적기에 살포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당부했다. <재광=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양파농가 '수입확대·생산과잉·소비부진' 삼중고

채소가격안정 수급관리 '심각' 산지선 TRQ 도입 '성급' 지적

전국 단위 양파 농가들은 중만생종 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과잉과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파 작황 호조는 농가들의 불안감마저 증폭시키고 있다. 불암감 증폭은 양파값 약세에 따른 것으로서 '수입확대, 소비부진, 생산량 증가'까지 겹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21일 기준 서울 가락시장의 상품

1kg 평균가격은 642원에 그쳤다. 이는 채소가격안정사업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상 수확기(4~7월) 기준가격 651원 이하라서 '하락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산지 관계자들은 TRQ 물량 도입에도 "성급했다"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2월 11일, 26일 각각 5000t과 5240t, 3월 7일 1만645t, 전체 2만885t 규모 TRQ 양파를 들여왔다. 양파 농가들은 "앞으로 중만생종 출하 시기가 당겨지면 가격 하락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이상기후 '고온' 취약 약용작물 관리 당부

천궁·당귀, 고온 취약 작물 "비료로 열 견딤성 높여야"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이상기상에 따른 약용작물에서도 고온 피해 대비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약용작물 중 '천궁·당귀'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산지 등에서 자라기 때문에 고온이나 직사광선, 수분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작물이다. 천궁은 30도(C) 이상 덥고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생육이 좋지 않고 뿌리썩음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 당귀 역시 덥고 습한 때 줄기 쓰러짐과 잎자루 부패가 자주 발생하며, 당귀는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고온기에는 작물의 '증발산' 속도가 빠르므로 토양과 작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줘 잎마름, 생장 정지 등 생리 장애를 예방해야 한다. 증발산이란 토양과 식물체에서 수분이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증발(토양 표면, 수면, 식물체 표면에서 발생)과 증산(식물이 수분을 잎의 기공을 통해 증기로 방출)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또 호흡작용이 활발해져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므로 영양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질소(N)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질소 대신 칼슘(Ca), 칼륨(K), 마그네슘(Mg) 등을 공급해 작물의 열 견딤성을 높인다. 진딧물·애벌레 같은 해충, 탄저병·시들음병 같은 병 발생도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25~30도(C)를 넘으면 해충 번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므로, 예방 관찰과 함께 재배지 잡초를 제거한다. 아울러 병에 걸린 식물은 즉시 제거해 확산을 차단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상에 따른 약용작물에서도 고온 피해 대비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사진은 천궁 생육 모습. <사진=농진청>



농촌진흥청은 이상기상에 따른 약용작물에서도 고온 피해 대비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사진은 천궁 생육 모습. <사진=농진청>

병해충 발생이 의심되면 '농사로-작목별 병해충 정보'를 참고해 증상 확인 뒤, 관련 약제를 뿌려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육종과 마경호 과장은 "고온에 취약한 천궁, 당귀 등 약용작물은 여름철 관리가 생육과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농가에서는 무더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궁, 당귀 등 다양한 약용작물 재배 관련 정보는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 '농업기술집약기-약용작물' 편을 검색해 참고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수목 식재

(주)하림, 반송 130주 기부 ESG 협력사업 일환

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단장 정주영)은 26일 (주)하림으로부터 ESG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부 받은 반송 130주를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내에 식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하림이 ESG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부한 재원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민간으로부터 기부 받아 이식된 반송은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낳는다. 반송은 키가 낮고 옆으로 퍼지는 형태의 소나무로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독특한 수형의 특징이 있다. 조

경수로 널리 활용되는 수종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나무 사이 공간이 넓어 새나 곤충 등이 머물기에도 적합해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특히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유지해 계절과 상관없이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반송 이식은 민간 기부, 기업의 ESG 실천, 전북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의 생태환경 개선 노력이 함께한 협력 사례로 생태경관과 생물다양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생태계 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도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사, 여름철 침수 대비 수리시설 재난 대응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영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자연재난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김 사장은 26일 전남 나주 분사에서 '여름철 농경지 침수 방지 및 시설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공사의 선제적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경지·수리시설 피해 사례와 원인 분석, 중장기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인중 사장은 앞서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농업용수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공사는 농업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역량을 높

여 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공사는 저수지와 배수장 기능을 사전에 점검함과 동시에 구조적 개선과 수위 관리 등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농업 기반 시설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저수지와 배수장 등 수리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정밀 진단과 개보수를 진행한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수율을 낮춰 관리하고, 배수장 설비 개선과 배수 능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계측기와 CCTV, 드론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비상 시 자동 경보 시스템으로 주민 대피를 지원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조달청-전북중기청, 지역 조달우수물품 지정기업 방문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논의

전북지방조달청(청장 한정훈)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26일 조달우수제품 지정기업인 신우종합철강 주식회사(대표 김현준)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방안 논의와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전북조달청과 전북중기청이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 지난 2021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지원기관 합동 현장방문이다. 더불어 현장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편·부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우종합철강 주식회사는 전북특별자치

도 군산시에 소재한 '강관 등 제조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상수도용, 농업 및 공업용수용 등에 적용되는 파이프관 및 이형관, 강관 밸브실 분야의 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업은 다양한 인증과 탁월한 기술력에 자부심을 둔 기업이다. 특히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아라미드 복합수지 PE 3중 파이프관'은 강관 외면에 PE 3중 코팅층 중 1층에 아라미드 복합수지를, 내면은 신뢰성 인증을 받은 예측수 수지를 적용 장기적인 품질을 강화해 어떠한 충격이나 부식의 위험으로부터 장기적으로 강관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김영태 기자

신협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

총 4종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비대면 채널 확대 예정

신협은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신협 영업점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윌렛에서 발급되는 국가 신분증으로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동안 신협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의 모바일 사용 지원은 그간 금융 거래에 불편을 겪었던 외국인 고객들이 이전보다 쉽고 빠르게 신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신협은 이번 모바일 신분증 3종 확대를 시작으로 향후 모바일뱅크 앱 '온(ON)뱅크'와 '리온뱅크'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지역 초등학생 현장 경제교육

지역기업 탐방 현장 체험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김보금)는 전북지역 초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중심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소비자 경제세상'을 지난 24일 진행했다.

'어린이 소비자 경제세상'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2005년 3월부터 진행해 온 초등학생 소비자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됐다. 올해 20번째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경제세상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탐방&수제 요구르트 만들기'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 15개교 운영

맞춤형 취업로드맵 지원 등 실무형 인재 양성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및 현장 중심 실무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로드맵, 취업맞춤반, 취업멘토링 등 취업준비 과정을 개설·운영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특

성화고등학교이다.

올해 선정된 학교는 △이리공업고(이차전지) △수소에너지고(수소에너지) △전주생명과학고(농생명) △전북베이커리고(베이커리) △전북팜고(반려동물) 등 전북글로벌특성화고 10개교와 미래역량강화사업 운영 학교 5개교 등 총 15개교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인 농생명산업, 수소산업, 이차전지 등과 연계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및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구성했다.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는 △직업계

고 취업로드맵 중점 운영 △직무중심 취업맞춤반 운영 △현장실습취업 향상을 3대 중점 과제로 삼아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학년별 진로설정 및 자기분석 △취업맞춤반 운영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취업컨설팅 및 멘토링 △일자리 발굴 및 매칭 등 졸업 후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26일 취업사관학교 선정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전문성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을 안내하고 우수사례 공유, 네트워크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특성화고 취업사관학교 운영은 학생 개개인의 취업역량을 극대화하는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이 핵심”이라며 “기업과 학교가 함께 설계한 현장 중심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은 물론 지역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문화 체험학습

현직 교육프로그램 참관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30명이 참여하는 상반기 해외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이번 해외문화체험학습은 전북교육청 특수교육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배움과 도전 기회를 제공해 장애 학생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재로 인해 해외연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평소 갈 수 없었던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게 된다.

특히 싱가포르 특수교육 기관에서는 현지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특수교육활동을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전북교육청은 하반기에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해외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제주 A중학교 교사 추모 주간 마련

26~30일까지 도교육청 1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제주도 중학교 교사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분향소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제주 A중학교 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자 오는 30일까지 도교육청 1층 현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추모 기간 동안 분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추모 메시지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에도 추모 내용을 띄울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후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지난 26일, 제주도 중학교 교사의 분향소에서 서거석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고인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교육장 등 간부진은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이 공간에는 헌화 및 교원들이 남긴 추모·기억의 글도 전시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가족, 스승, 동료로 잃고 슬픔에 잠겼을 유족들과 학생, 동료 교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교원 보호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모든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병원 골절치료 최신 기술 임상 적용

‘노보시스 트라우마’ 활용 수술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골절치료의 최신 기술 노보시스 트라우마(NOVOSIS TRAUMA)를 임상 적용, 혁신의료기술과 임상현장을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정형외과 윤선중 교수(전북대병원 글로벌혁신의료기술실증지원센터사업 연구책임자)가 골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노보시스 트라우마를 활용한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했다.

노보시스 트라우마는 재조합형 인간 골형성단백질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기반의 세라믹 캐리어로 구성된 골이식재료, 골유도능력과 생체적합성이 우수해 급성 골절치료와 골결손 부위의 재생과 회복을 지원한다.

전북대병원은 의료기기 실증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국내 유일의 실증거점 병원으로 이번 수술을 통해 기존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명칭의 제품을 적용한 사례를 확보하게 됐고, 실증 중심병원으로서 혁신의료기술과 임상현장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전북대병원은 다양한 혁신의료기기가 국내 임상현장에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실증 환경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협력 기반 하에 객관적 검증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형외과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 개발, 생체역학 시험평가, 글로벌 인증 대응까지 아우르는 혁신의료기기 플랫폼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윤선중 교수는 “골이식재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임상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경험과 평가를 통해 축적되는 것이다”며 “향후 실증사

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좋은 기회였고, 다양한 의료기술이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부패취약분야 청렴정책 토론회

청렴취약요인 진단 개선방안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을 위한 청렴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거석 교육감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국·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간부진이 참석해 조직 전반의 청렴 역량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공사관리, 현장체험학

습, 운동부 운영, 계약,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인사 운영, 예산 집행, 부당한 지시 및 청탁, 조직 내 갑질 행위 등 내부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청렴 퍼실리테이터를 중심으로 한 실천 강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해피콜’ 등 신속 대응체계 마련 △민·관 협력 기반 청렴 거버넌스 확대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공무직노조 “학교 노동자들 폭염속 건강권 위태”

전북지역 학교 노동자들이 폭염속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 도내 학교의 94%가 조리실에 열음정수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고, 80%는 폭염 때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교 현장의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폭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학교 급식실에서는 전국

적으로 그동안 170여 명의 폐암 산재자가 발생했는데도 환기시설과 조리방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육의 안전도 담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폭염 속에 일하는 학교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보행할때 꼭 지켜야할 교통안전 수칙

횡단보도 신호준수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무단횡단 금지

작은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킵시다.

군산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군산시가 26일 대상바이오 군산공장 일원에서 풍수해-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라는 주제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하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해마다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재난 현장 초기 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 단계를 중점적으로 숙달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바다에 인접하고 산업단지가 조성된 군산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호우뿐 아니라 폭풍해일로 인한 공장침수와 지반침하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전북지방환경청·소방·경찰·군부대·화학119구조대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했으며, 군산시청 재난종합상황실과 공장 재난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군산시장의 지휘하에 토론훈련이 진행되어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황실과 현장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및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초동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훈련이 이뤄졌다.

한편 대상바이오 군산공장에서는 현장훈련이 진행되어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고 현장 응급의료소도 설치됐다. 각 기관은 '현장초지 행동매뉴얼'에 따라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민대피, 사고수습 및 복구 활동에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또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통합지원본부도 설치됐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수색 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창한, 이하 센터)가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본부장 최정욱)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6일 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지역 로컬푸드와 안전한 공급과 소비 촉진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증진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통한 중소농가의 소득 증대 및 관계 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군산 로컬푸드의 안전한 공급 △식생활 문화의 질적 향상 △전력산업 홍보 △지역협력체 구축에 함께 약속했다.

센터는 군산 에너지산업 발전을 비롯해 한국서부발전(주)·군산발전본부(본부장 최정욱)가 믿을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소비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노력해 온 직원이 그 가족의 식생활 문화의 질적 향상과 건강 증진, 더불어 소비 촉진과 홍보를 통한 지역 중소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여름철 시설물 점검 저수지 등 농업 재해 예방

익산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선제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농업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익산시는 농업 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126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저수지 107개소 △양수장 17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침수 우려지역 용·배수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했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역 바이오농업공장은 "앞으로도 농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호남고 통학로 지중화 완료

호남고 정문~정주교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

정읍시가 호남고등학교 통학로의 전선과 전신주를 지하로 옮기는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며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선사했다.

이번 사업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의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고 전신주와 통신주를 철거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호남고 정문에서 정주교까지 약 400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KT, 5개 통신사와 협력해 총사업비 약 26억원(국비 3억원 포함)을 공동 분담하며 사업을 추



정읍 호남고등학교 통학로

<사진=정읍시>

진했다. 공사는 지난해 5월에 착공해 약 1년간의 공사 끝에 완료됐다.

이번 사업으로 통학로이자 주민 생활도로인 해당 구간은 전신주가 사라진 거리로 탈바꿈했다. 그동안 전선으

로 가려졌던 시야가 확보되며 도시 경관이 한층 깔끔해졌고, 보도 폭도 넓어져 시민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 팔봉 군경묘지, 추모와 심 어우러진 공원

도시녹지 복합공간 조성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이 익산 시민의 일상과 만난다.

익산시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팔봉 군경묘지'를 주민 친화형 공원으로 재단장하고, 추모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4일 한병도 국회의원(익산)과 함께 팔봉 군경묘지 주민 쉼터를 방문해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현장행정은 조성된 공원 시설과 주민 휴게시설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팔봉 군경묘지는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과 공동체 정체성을 간직한 공간이다. 시는 묘지의 연속함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휴식처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실제로 묘역 인근 약 1만 6,000㎡의 부지에 산책로가 정비됐으며, 다채로운 조화류 식재와 함께 그늘쉼터·벤치 등 휴게시설이 곳곳에 배치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묘역 중심부는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



하고, 주변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공원 기능을 갖춰 '기억과 일상이 함께하는 공간'이 된다.

이 같은 '묘지 공원화'는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보편화된 도시재생 방식이다. 묘지가 도시민의 산책과 여가를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 생태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향후 이 공간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역사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정체성과 생태 감수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체험 기반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새들군산' 새 단장·특산품 상표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200만 원 상금

군산시가 특산품 통합 브랜드 상표 개발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대표 농특산물 인증상표인 '새들군산'을 새롭게 바꾸는 '군산시 특산품 상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군산 특산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규 상표를 새로 개발하는 데

예정이며 총 4점의 수상작이 선정되고, △최우수상 200만 원(1명) △우수상 100만 원(1명) △장려상 50만 원(2명)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향후 군산시 특산품 상표로 실제 활용 및 시정 홍보물, 특산품 포장재, 전시 패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시정소식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학교밖청소년 39명 검정고시 합격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한 학습 노력과 시의 맞춤형 지원 덕분에 2025년 제1회 검정고시에서 87%에 달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5일 실시된 검정고시에 정읍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 45명(고졸 42명, 중졸 3명)이 응시했고 최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총 39명이 합격하며 값진 성과를 올렸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복귀

와 자립을 돕기 위해 매년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검정고시 대비반, 기초학습반, 1:1 학습멘토링을 비롯해 진로·진학 멘토링, 무료 온라인 강의와 교재 지원 등 다방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인재양성과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 대비반과 학습멘토링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자격증 과정 운영, 직업체험·직업훈련, 급식과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에 자신 있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대표 전화로 문의하면 관련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금빛 스매시 김동문’, 익산 홍보대사 활약 기대

위촉패 수여 2년 간 활동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전설 김동문이 익산시 매력에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익산시는 지난 23일 김동문 원광대학교 교수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문 교수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국민에게 기쁨을 안긴 한국 배드민턴 간판이다.

선수 은퇴 이후 모교인 원광대학교에서 교수를 맡고 있으며, 해설위원과 스포츠 행정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으로 취임하며 한국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익산시 홍보대사로서 시 주요 축제나 행사 등에 참여해 익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최고의 실력자로서 인정받는 김동문 씨를 우리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 2년 간 익산의 매력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강임준 시장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 준비 만전”

읍면동장 등 일선 기관 역할 중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임준 군산시장은 26일 간부회의에서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 준비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강 시장은 “선거는 국민의 뜻이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신 한병도 의원님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주민 맞춤형 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읍·면·동·장 등 일선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투표소의 시설과 운영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들이 투표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되며, 군산시 27개 사전투표소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본투표는 6월 3일, 군산시 내 78개소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공직자 사전투표 독려... 출근 시간 조정

부서별 번니절씩 나눠 적용

익산시는 26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치다. 공직선거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익산시 공직자에게는 근무시간 중 투표권 보장의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출근 시간을 활용한 사전투표를 기회로 삼았다.

직원들은 부서별로 번들씩 나눠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유롭게 투표를 마친 뒤 출근할 수 있어 업무 연속성을 보장받는다. 선거·개표 업무에 투

입되는 직원들도 편리한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사전투표소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관장 투표소를 지정하고, 행정 혼선 최소화와 쾌적한 투표 환경 유지에 힘을 쏟았다.

정현을 시장은 “투표율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익산의 자선인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자”고 말했다.

이날 정 시장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강조하며 주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관리도 거듭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민주주의 주인은 시민”

간부회의, 대선 투표 독려

정읍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이학수 시장은 26일 오전 영산 간부회의에서 “민주주의는 투표에서 시작된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 대상 투표 홍보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 사람의 투표가 공동체의 방향을 바꾸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 투표를 제고에 앞장서 달

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홍보에 돌입했다.

주요 도로변과 청사 등에 투표 독려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농촌마을에는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등 시민의 생활 공간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 누리집과 공식 SNS, 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연령별·지역별 맞춤형 안내도 병행한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시, 대울오토캠핑장 개장

29일 금구대울유원지 준공 식전국생활인구유입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동부권 생활인구 증대방안 일환으로 금구 대울유원지 조성사업을 조성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개설사업, 산책로 및 데크 조성, 오토캠핑장 조성, 아동어드벤처 놀이동산 조성 등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번 계획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관광·휴게 콘텐츠 조성으로 전주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전국에서 캠퍼가 몰리고 각계각층의 관광객이 김제를 찾아 김제의 생활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금구 대울유원지 오토캠핑장은 오는 29일 개장한다.

금구 대울유원지 오토캠핑장은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357-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50,530㎡(약 15,312평) 규모의 부지에 지난 2017년부터 총사업비 121억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했다.

지난 4월에 관리위탁 운영자 선정 및



김제시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김제시>

관리위탁 계약 체결하고 개장을 위해 현지 시설물 점검 중에 있다.

이에 발맞춰 기반시설(도로) 개설사업, 산책로 및 데크 조성, 오토캠핑장 조성, 아동어드벤처 놀이동산 조성 등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오토캠핑장과 더불어 지난 2023년에 대울저수지 봄빛글램핑장에서 대울담까지 약 700m를 둘레길 및 데크를 조성했다.

시는 기존 금구 대울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 주변 현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올해 5월부터 금구 대울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토캠핑장과 대울유원지는 자연과 힐링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이곳이 김제시 동부권의 새로운 자량이 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터미널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속도화

LH 협약 아파트 건립 단일사업 역대 최대규모

교통·주거·청년창업 등을 엮은 고창의 중심지 재편이 본격 시작했다.

노후화와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고창버스터미널이 2년 뒤 사람과 돈이 모이는 혁신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현재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지난 2일 터미널 건립을 위해 건축설계공모가 공고돼 여러 설계사가 응모 접수한 상태다.

6월 중 당선작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건축설계가 시작된다.

또한 임시로 사용하게 될 터미널은 고창읍 문화예술회장과 농협하나로마트 사이에 마련된다.

현재 차량대기공간과 간이매점소, 대합실 등의 공사가 진행중으로, 7월 본격 운영을 준비중이다.



동시에 터미널 철거공사도 시작된다. 지난 12일 터미널 뒷상가에 대해 건축심의가 완료돼 6월 중 착공될 예정이다. LH공사 역시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에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고창군과 6월 중 공동시행협약에 예정 있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는 2022년 12월 군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다. 사업비는 1777억원이다. 고창군이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서해바다 블루카본 현판 제막식

포스코이앤씨 등 참여 갯벌 생태복원 등 협력 다져

부안군은 26일 줄포만 갯벌(면적 4.9㎢) 일원에서 군과 부안해양경찰서,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해바다 블루카본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4월 체결된 서해바다 블루카본 협약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협약연장에 따른 각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바다 블루카본 사업은 줄포만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력을 높이고 갯벌 보전 및 생태복원을 실천하는 민간 협력 프로젝트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칠면초, 해홍, 함초, 나문재 등 염생식물 83kg과 모종 500주를 갯벌에 식재한 결과

줄포만 갯벌의 블루카본 생태계가 한층 풍부해졌으며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NGO가 함께 힘을 모아 갯벌 보전 프로젝트를 현실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생태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ESG 실천을 위한 연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반부패 청렴정책 본격 추진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 추진계획·향후 방안 공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정책도시 실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을 본격기동한다.

시는 2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전 청원이 청렴 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정책 도시 실현을 목표로 본격적인 반부패·청

렴 정책을 본격 기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성주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단소장 및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신규 시책을 보면 지난 3월에 추진한 청렴 개선방안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청렴 토크(talk)! 공감 토크(talk)!’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청렴을 이야기하는 ‘△청렴 24.7 라디오’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특히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분야

등 대민행정 분야는 △청렴 서한문 및 청렴 뉴스레터 발송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직자의 청렴은 곧 시민에 대한 신뢰이고, 청렴은 가장 강력한 행정력”이라며 “간부공무원이 앞장서 청렴을 실천하고, 전 직원의 공직자애와 역량을 모아 부패 없는 청정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교육

6월 20일까지 신청

부안미디어센터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부안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실습 중심 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블로그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개설, 제품 촬영 및 편집, 실제 라이브커머스 송출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직접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부안에서 특산물을 생산·판매 중인 소상공인 10팀이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전까지 단계별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으며 콘텐츠 제작, 판매 채널 운영, 포장 기획 등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실무 전문가 3명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촬영 장비와 교육 공간도 모두 제공된다.

참가자는 교육 과정 중 자신의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를 직접 개설하고 실제로 본인의 상품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송출하는 경험까지 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교육강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 온라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투표 참여 독려 전방위 홍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우선 김제시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투표 독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정성주 시장 역시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보다 친근하게 소통하며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 청사 내부에는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배너를 설치하고, 시내 주요 전광판을 활용해 영상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26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는 간부공무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우선 김제시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투표 독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정성주 시장 역시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보다 친근하게 소통하며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고승완 주무관, 지방세 연찬회서 최우수상

‘SI데이터센터 지방세 과세방안’

부안군은 재무과 고승완 주무관이 2025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 고승완 주무관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자치도 지방세 연찬회는 1983

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43번째를 맞는 행사로 지방세의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을 위한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 평가로 선정된 6건의 우수과제가 PPT로 발표됐으며 발표 후 70여명의 참가자들의 토의와 질문을 통해 순위를 정했다.

한편 고승완 주무관은 오는 10월 예정인 전국 연찬회에서 전북자치도 대표로 발표하게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립도서관, 28일부터 발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립도서관은 오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자연과 함께 책이랑 전통놀이랑’을 총 12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기관인 ‘모네’와 협력해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 교육부터 시작해 그림책을 매개로 한 독서활동과 제기차기, 딱지놀이, 실뜨기 등 전통놀이가 융합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자연 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사운드워킹과 누에 체험이 포함된 문화 프로그램은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와 전통놀이, 자연 체험을 결합해 발달장애인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독서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랑장학재단, 273명에 총 3억7천만원 장학증서 수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재단법인 김제시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이 26일 ‘2025년 김제시랑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장학생 선발과정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열린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장학생 187명과 계속 장학생 86명을 포함한 총 273명의 학생이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총 3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제의 미래에 주인공이 될 김제시랑장학생에게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연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대학생은 장학금 종류에 따라 연 100만 원 ~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한 학생은 “꿈을 향해 나아가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이사장은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별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공예주간 ‘인생공예, 일상공예’ 마무리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지난 22~25일 열린 ‘공예주간-인생공예 일상공예’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대손손 이어진 고창의 공예, 일상의 가치를 감각하는 공예’를 주제로 열렸던 공예주간은,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무형유산과 지역 내 예술인들의 공예작품을 한 곳에서 직접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무형유산 보유자와 민원이 직접 진행하는 인생공예 ‘마스터 클래스’와 지역 내 예술인들이 진행하는 일상공예 체험의 사진 접수는 다 완료됐으며,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아 많은 체험객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공예주간은 고창군에서 각종 무형유산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의 본격적인 운영의 첫 시작을 알린 행사로, 그 의미가 배가 됐으며 공예주간이 끝나는대로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조창환 상임이사는 “고창의 공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고창군민과 관광객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청소년 5:5 풋살대회 성료

고창군이 지난 24일 고창읍 나들목공원 풋살장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 ‘제6회 고창군 청소년 5:5 풋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초·중·고 각 4팀씩 총 12개팀 100여 명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은 시종일관 활기차고 뜨거운 경장을 벌였다.

치열한 경기 끝에, 초등부는 (아이새f)팀이 우승하고 (14f)팀이 준우

승을, 중등부는 (스파인)팀이 우승을, (스파이)팀이 준우승을, 고등부는 (도끼파대장임기수)팀이 우승했으며 (조코볼)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청소년들과 시속을 함께 한 심덕섭 고창군수는 “풋살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패어플레이 정신과 협동심을 배우고, 서로 존중하면서 안전하게 끝까지 멋진 경기를 펼쳐주 기 바란다”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산불 재난 대응 강화 '총력'

군수 지휘 공무원 진화대 160여명 투입 실전 훈련

순창군이 실전 같은 산불 대응 모의 훈련을 통해 재난에 강한 공공조직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지난 23일 대형 산불에 대비한 공무원 산불진화대 모의훈련을 지난 3월 실제 산불 발생현장(쌍치면 용전리 산 45)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산불 대응 역량과 지휘체계를 전면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추진됐다. 순창군은 2월부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 체계를 유지해 왔고, 특히 올해는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전국적으로 높아지면서 산림 보호는 물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공무원 산불진화대를 공식 발족하고, 실전 중심의 모의 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했다. 훈련은 실제 산불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공무원 진화대의 초동 대응력 향상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



순창군 지난 23일 대형 산불에 대비한 공무원 산불진화대 모의훈련을 지난 3월 실제 산불 발생현장인 쌍치면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사진=순창군>

점을 맞췄다. 훈련에는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2개조 10개 팀으로 나누어 참여했으며, 순창소방서·경찰서·산림조합·이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단체도 함께해 총 160여 명이 동원됐다.

또한, 산불 입차행기 2대, 산불방제차 2대, 소방펌프차 2대, 등짐펌프, 불갈퀴 등 각종 진화 장비도 총출동해 실제 상황에서 가까운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최영일 군수가 산불 대응본부장으로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 과정

에서 지휘 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 최 군수는 초기 상황 판단부터 진화 명령, 유관기관 협업 조율까지 직접 이끌며 훈련 전체를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군은 이번 모의훈련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가을철 산불 대응 체계에도 공무원 진화대를 중심으로 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제95회춘향제 자원봉사단 해단식에서 우수 자원봉사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남원시>

남원시 '학교밖청소년', 춘향제 빛났다

춘향제 자원봉사 감사장 봉사로 지역과 동행 성장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일신)는 춘향제 기간 동안 펼친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열린 '제95회 춘향제 자원봉사단 해단식'에서 우수 자원봉사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남원시산목봉사단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빵 간식 2,000개를 직접 만들어 나누며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센터는 우수 자

원봉사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일신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 내 자원봉사 동아리 '꿈드림 봉사동아리'는 남원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매년 춘향제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소양면 장애인시설 솔잎봉사회와 제주 문화체험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솔잎봉사회(회장 이승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완주군 소양면 장애인시설(예수재활원) 중증 장애인 및 재활교사 20명과 직접사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2박3일간 특별한 감성체험과 힐링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제주 힐링 문화탐방은 장애인들에게 더욱 더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경험과 장애의 수용, 그리고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힐링 문화탐방은 사려니숲, 비자림, 보름암, 에코랜드, 족욕체험, 성음민속보존마을 등 문화 유적지 코스 탐방, 체험 등으로 이뤄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심리적으로 재활을 돕고자 많은 도움이 됐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솔잎봉사회는 창립 31년된 봉사회로 60명의 봉사원들이 매일 소외계층 및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어려운 곳을 찾아 부식품 전달, 재능기부 공연, 봉사, 헌혈, 문화탐방 등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매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완주=김명근기자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곳 추가 지정

미래연합의원·마음사랑병원 '새싹지킴이병원' 아동 지원

남원시는 지난 23일 특성화된 의료역량을 활용해 학대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미래연합의원

과 마음사랑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의료 역량을 활용해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 2021년부터 남원의료원을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지정으로 아동학대 의료지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싹지킴이병원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

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이다.

지정 대상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이며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중 2개 이상을 진료과목으로 갖춘 경우로, 소아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갖춘 경우 1개 과목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그림대회' 입상작 전시

군청 로비서 내달 15일까지 어린이 시선 담은 30점 작품

완주군이 군청 1층 로비에서 '2025 아동친화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전시회'의 막을 올렸다.

26일 열린 오프닝에는 유희대 완주군수, 오미숙 완주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김대호 농업중앙회 완주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시는 완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관, 농업중앙회 완주군지부 후원으로 어린이들이 꿈꾸는 아동친화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회는 유아와 초등학교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입상작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전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이번 전시회는



완주군이 군청 1층 로비에서 '2025 아동친화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전시회 개막식을 열었다. <사진=완주군>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응원하는 자리로, 완주군의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림그리기 대회는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대축제의 일환으로 완주

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용수 한일장산대 교수, 이혜진 삼우초등학교 교장, 최영순 (사)전국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회장, 김성욱 전 군산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완주=김명근기자

남원시가족센터 '외국인 한국 적응' 4단계 돌입

'KIIP' 3단계 17명 수료 귀화·체류 가산점 혜택도

남원시가족센터(센터장 나찬도)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과정을 17명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2학기에는 총 22명의 교육생이 4단계 교육과정에 진급했으며, 이들은 매주 토요일 8시간씩 집중 수업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4단계 교육과정은 다문화사회에서의 적응력 향상과 한국 사회에 대한 중

합적인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생들은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사회제도,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고 있으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단계 수업은 향후 5개 과정으로 이어지며, 최종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 수료 후에는 귀화나 체류 자격

심사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북 지역(김제, 임실, 무주, 순창)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주말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남원시가족센터 나찬도 센터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생들이 한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례수박, 고품질로 소비자 입맛 공략

삼례농협 수박공선회 출하식 '블랙위너' 우수 당도로 호평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완주군 삼례수박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완주군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학)은 26일 산지유통센터에서 수박 공선회 첫 출하식을 가졌다.

이날 출하식에는 강신학 삼례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유희대 완주군수, 유익식 군의장, 완주관내 농협 조합장, 삼례농협 임원 및 직원, 농협 중앙회 관련 직원, 수박공선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삼례농협은 공선회 회원 30명과 함께 이날부터 6월 말까지 약 370톤의 수박을 비파괴 당도기에 당도 12브릭스(Brix)이상만을 선별하여 롯데마트, 하나로유통, 호남물류, 전주 익



산 등 인근 하나로마트, 온라인 판매를 통해 유통하고 있다.

완주 블랙위너 수박은 농우바이오가 만드는 삼례농가가 생산하여 롯데마트, 농협하나로 등 유통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완주군을 홍보하는 데도 큰 일조를 하고 있다.

특히 삼례 블랙위너 수박은 당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년 14만그루 이상 정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완주=김명근기자

순창군, 전 가구 생활안전 자율점검표 배부

주택안전 기본사항 14항목 다중이용시설 점검 병행

순창군이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가정용 자율점검표 14,551부를 전 가구에 배부하며 생활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가정용 자율점검표에는 주택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가스 ▲전기 ▲소방 ▲건물안전 4개 분야 14개 항목을 체크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직접 가정 내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

도록 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안전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 음식점, 노래방, 숙박시설, 유치원, 농어촌민박 등 139개소를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표는 지난 21일 우편 발송을 통해 각 시설에 전달 완료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 발대

주부·자영업자·활동가 등 구성 동가 등 지역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로 구성됐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을 발대했다. 26일 완주군은 최근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 3층에서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 직매장 운영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위촉된 모니터단은 총 20명으로 다양한 연령의 주부, 자영업자, 활

동가 등 지역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유통기한, 표시 기준, 품질상태, 지역산 외 판매 감시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친다.

발대식에서는 로컬푸드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김명근기자

순창군, 의료기기 취급업소 안전관리 강화 점검 나서

순창군이 관내 의료기기 취급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군은 이날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 관내 의료기기 취급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의료기기 개설 및 변경신고 준수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 여부, 이용자 대상 홍보 및 교육 실태, 무료 체험방 등 취급업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농협 임직원 65명,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50만원 기탁

순창농협 임직원 65명이 지난 26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성철 순창농협조합장과 신종철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을 비롯해 박동열 무주농협조합장 김병식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성철 순창농협조합장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무주농협과의 교차 기부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며 "무주군과 순창군이 상생 발전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되길 바라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두 지역의 협력 또한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창농협의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지역 간 상생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무주농협도 오는 6월 16일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백만 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목재산업 활성화도 대전 보문산 목조전망대 등 견학

진안군이 새로운 경제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주성 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전 보문산 목조전망대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두 장소는 산림청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조건축실시사업과 관련된 곳으로 대전 보문산 전망대는 2021년부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규모 3층, 부지면적 2,386㎡에 복개, 이벤트층 등의 프로그램을 담아 주민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

이번 견학을 통해 목재의 건축 구조부 설비에 대한 설명과 주요 기술(공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방안 및 도입 시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기본구상을 진행했다.

전주성 진안군수는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해 목재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마이산에 이어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 관광활성화로 생기고있고 활발한 진안군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주성 군수 등 160여명 참가 진안고원길 이어걷기 11회차 성료

진안군은 지난 24일 진안고원길 이어걷기 프로그램 '바이고서(바람 이는 고원길에서다)' 11회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 160여 명이 함께했으며 특히 전주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이를 계기로 공식사회 내에서도 진안고원길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치유관광 자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진안고원길 이어걷기 행사인 '바이고서'는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진안군의 대표 치유관광 트레킹 프로그램으로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14주간 총 210km에 걸쳐 진안고원길 전 구간을 순차적으로 걷는다.

전주성 진안군수는 "진안고원길을 걷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참가자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매우 의미 있었다"며 "공직자들도 몸소 걸으며 진안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치유받는 경험을 공유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안고원길을 지역 대표 힐링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 봉화유적, 도 기념물 지정 예고

3기 봉화나란히 축조 삼국시대 영역방어체계 역사문화적 위상 재조명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전북 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 됐다. 전북도는 3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은 무주읍 당산리 산2번지 해발 약 420m 산능선 상부에 위치한 고대 봉화 유적(봉화대 3기, 방호석축, 집수시설, 추정성벽 등)으로, 2021년 국립군산대학교 광장근 교수에 의해 처음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

굴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호 봉화의 기초에서 토기 조각이 출토되는 등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무주 남대천 일대 주계고성, 대차리 고분군 등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의 영역 및 방어체계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 형태와 구조가 독특하며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많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부 산간 지역 봉화 유적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 고대 무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은 고대 방어시설과 지역사 연구의 핵심 자료"라며, "도 기념물 지정

은 무주군이 지난 3년에 걸쳐 진행한 학술조사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지닌 고고학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문화유산 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번 도 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학술발굴조사와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권 형성과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당산리 봉화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N치즈 프리미엄화 발판 마련

저지종 젖소 5두 추가 입식 고품질·저지유 생산 가능

임실군의 저지종 젖소 육성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임실N치즈 프리미엄화에 발판을 착착 다져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이 제공한 저지종 젖소 5두를 성수면에 소재한 전문 목장에 추가 입식했다.

이번 저지종 젖소 입식은 임실N치즈의 프리미엄화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임실군과 국립축산과학원의 핵심적인 협약 사업이다.

작년에 입식된 1두를 포함해 지금까지 6두의 저지종 젖소가 도입됐으며, 앞으로 2027년까지 총 16두가 임실군에 제공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도입된 젖소는 모두 우수한 A2 유전형질을 보유하고 있어 고품질의 A2 저지유 생산이 가능하다.

A2 우유는 일반 우유에 비해 체내 소화 및 흡수가 잘되고 우유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공된 저지종 젖



임실군의 저지종 젖소 육성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임실N치즈 프리미엄화에 발판을 착착 다져나가고 있다. <사진=임실군>

소는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와의 별도 협력을 통해 수정란 자체 생산을 위한 '공란우'로 활용된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저지종 혈통의 안정적 확대와 유전형질 향상, 나아가 수정란 자급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저지종 젖소'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우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저지종 젖소는 일반 홀스타인 젖소보다 우유 내 지방 함량이 15~20%, 칼슘

함량은 15~18%가 많아 우유로 만든 숙성치즈와 요구르트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A2 유전형질을 가진 저지종 젖소는 임실군 우유공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프리미엄 시장 진입의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며 "국립축산과학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저지종 축군 형성 기반을 탄탄히 다져 고부가가치 낙농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27일 전북도지사배 승마대회 열어

6월 1일까지 3개 종목 32경기 약 350명 선수 참가 기량 겨뤄

전북 장수군이 오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천천면에 위치한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승마협회(회장 박영재)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마장미술·장애물·이벤트경기 3개 종목 32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약 3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기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분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



감없이 발휘해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승마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방문객들이 장수를 다시 찾고 싶

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생활인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상수관로 야간 집중 누수탐사

전문인력 128명·6백여km 탐사 광역상수도 기반 마련 기대

진안군이 누수로 인한 수돗물 손실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관로 점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600여km에 달하는 상수관로에 대해 야간 집중 누수탐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후 관로 증가로

상수도 누수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관망 관리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탐사는 (주)서용엔지니어링을 비롯한 4개 전문업체가 참여한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구역'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누수탐사 전문인력 128명이 진안에 집결해 단기간 내 집중 투입됐다.

이들은 전자누수탐사 및 청음장비를 활용해 관로 누수 여부를 정밀 점검

하고 계량기 청음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탐사를 벌였다.

군은 상수도 사용량이 줄고 외부 소음이 적은 야간 시간대를 활용함으로써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짧은 시간 내 넓은 범위를 점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수지점을 빠르게 보수하고, 이를 통해 유수율은 물론 예산 효율성까지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6개도서관서 30일까지 진행

장수군이 주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책을 매개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되며 매달 각 읍면에 위치한 6개 작은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우

리 마을 지키기(장수)', '말랑말랑 그림책(산서)', '책 읽는 힘:매일의 독서습관 만들기(산서)' 등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세부 사항은 장수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홍열 문화체육과장은 "작은도서관은 군민들이 책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군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의회, 주민참여 예산제 개정조례안 가결

한국회 의원 발의...주민 의견 예산 편성과정 집중 반영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제 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회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기 쉬웠던 계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장수=최진수 기자



한국회 의원

또한 읍면 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각 읍면의 실정에 맞는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회 의원은 "예산 편성과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청 누리집 개선...공유재산 공개 범위 확대

군민 이용 접근성 높여

무주군이 군민의 공유재산 정보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주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개선했다. 무주군은 누리집 내 '공유재산' 전용 페이지를 정비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군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군 공유재산 정보는 무주군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 공유재산' 메뉴를 통해 △공유재산의 종류 △사용 허가 절차 △매각 절차 △무주군 재산 현황 △토지 및 건물 사용료 계산 기능 등 분야별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누리집 내 '사용료 계산하기' 기능은 사용자가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을 입력하면 예상 사용료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어 재산 이용 희망자가 실제 이용 전 사전 검토나 계획 수립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서비스 신청 절차나 신청 기준 등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재산 유형별 문의처도 같이 제공한다. 장수읍 행정복지센터와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지방재정 확충, 행정목적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정보 이용 확대가 군민의 공유재산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이어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체계 가동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영농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내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용수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평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군은 농작물 생육에 차질이 없도록 관내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200여 개 농업용수 공급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능 미비 및 노후 구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저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저수지에 대해서는 수위 모니터링, 인근 수원과 연계한 물 공급, 사용량 분산 조정 등 특별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영농기 시작부터 고온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용수 확보가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공무원-외교관 국립공원 봉사활동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합격한 신입 사무원과 외교관 총 57명을 대상으로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가야산, 팔공산, 덕유산, 설악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외래 식물 제거, 자생식물 식재, 탐방로 및 공원시설 정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환경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정음=김정인 기자

남원제일고, KICC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전원 수상

금 4팀·은 3팀·동 1팀

남원제일고등학교(교장 김한태) 조리제빵과 학생 20명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개최된 2025 KICC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등 전원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KICC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는 한국조리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18개 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대회로 대한민국 상반기 국제요리대회 중 전국 최대 규모 행사이다.

20명 8팀이 참가하여 금메달 4팀, 은메달 3팀, 동메달 1팀이 수상하여 참가학생 전원이 수상했으며, 종합상사로 특별기관장인 종합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과 종합 우수상(대회장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은 지도교사 최정원, 김동현, 이미리 선생님의 지도아래 수업시간에 기본요리 기능을 익히고 방과후수업과 주말을 이용하여 대회 준비를 하면서 요리 실력을 향상하였고 대회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은행,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보건위생용품 박스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6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200박스(600만 원 상당)를 전주시에 기탁했다. 이번 여성청소년지원은 전북은행의 복지사업인 '딸에게 보내는 선물'의 일환으로, 이날 기탁된 보건위생용품은 저소득 부가정 자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익산도시공단, 군관 협력 기여 육군본부 '감사장' 받아

육군 민간부서관 모집 홍보

익산도시공단이 육군 간부 모집 홍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본부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협력에도 적극 동참하며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지역 사회 상생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26일 육군본부 인재선발팀장과 관계자들이 공단을 직접 방문해 육군인사사령관 명의의 감사

장을 전달하며 공공기관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대한민국 육군 민간부서관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에 공단이 적극 협조한 데 따른 것으로, 종합운동장과 배산실내체육관의 전광판을 활용해 모집 포스터를 송출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지역 내 기관과의 공익 목적 홍보 지원 요청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공단은 공공기관 간 연계 협력 체계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 군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군산시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효)는 26일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박경래)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기탁은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경래 회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내장산 국립공원 환경정화 활동

정읍시니어클럽 자원봉사회 및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국립공원 내장산에서 지난 23일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 중 자조직으로 조직된 자원봉사회 회원 100여 명이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약 300m의 거리에 걸쳐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정읍시니어클럽 박한수 관장은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정음=김정인 기자



정읍 연지동지사협, '사랑의 꾸러미'로 이웃사랑 실천

정읍시 연지동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에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연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허종성)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00만원을 활용해 관내 각 통에서 1가구씩 총 20세대의 저소득 가정을 선정해 꾸러미를 전달했다. 사랑의 꾸러미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품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정음=김정인 기자

완주 고산농협, 서울 학생들에 친환경 벼농사 체험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지난 21일부터 서울시 5개구, 12개 학교 2,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모내기 행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2일까지 진행될 모내기 체험에서 학생들은 벼 고추상자를 활용해 직접 모를 심고 상자 안에서 제조작업을 해줄 우렁이를 넣어 주며 색다른 체험활동을 한

다. 체험은 단순한 모내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부대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친환경 농업교육, 벼짚 공예 전시, 수중생물 및 곤충 관찰, 잡곡 반지 만들기, 포토존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자원봉사센터, 산불 피해지역에 온기 나눠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지난 3월 21일 발생한 경북 안동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전북 7개 마을 94세대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온기나눔' 문패달기 등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진행했다.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은 모듈러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봉사자들은 임시주택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직접 제작한 자작나무 문패를 달아드리고, 주거 환경 정리 및 정성이 담긴 반찬도 전달했다.

센터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북원불교봉공회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시

/김영태 기자

진안 주천면지사협, 독거노인에 직접 만든 반찬 나눔

진안군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반찬 꾸러미를 전달했다.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날 제육볶음, 멸치볶음, 메추리알 조림 등 고단백 영양이 풍부한 반찬을 직접 만들어, 음식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가구 등 30가구에 반찬을 전달하고 이웃의 정을 나눴다.

특히 직접 가정에 반찬을 배달하며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피며, 생활실태나 어려운 상황을 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가전제품 화재예방 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제품관리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코드를 빼주세요

연기나, 타는냄새가 날 경우 전원코드를 빼고 해당 업체로 문의하세요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말고 해당업체에 문의하세요

주변관리

멀티콘센트 사용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코드를 뺐 후 마른수건으로 먼지를 청소 해 주세요

전원코드를 끝까지 꽂아 주세요

〈一事一言〉



외교의 복원, 국민 중심 실용주의로 나가자

김관춘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외교와 안보의 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분단국가라는 제약 속에서도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장시킨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에는, 애국심 강한 수많은 외교관들의 헌신과 전략이 깃들여 있다.

그 외교의 최전선을 지켰던 최병호 전 주노르웨이 대사(LA 총영사 역임) 등 전직 고위 외교관 45명이 최근 '실용 국민외교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선언이다. 이는 단순한 후보 지지를 넘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외교와 안보의 틀을 복원하겠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절박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대한민국 외교는 실용보다 이념에 치우쳤고 신중함 균형보다 무리한 편향을 택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 아래, 미중 전략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교적 유연성은 사라지고, 갈등의 위험은 가중되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포기하며 일방적 양보로 얼룩졌고 한중관계는 불신과 냉기로 얼어붙었다. 북핵 문제는 더 이상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북한과의 대화 장구는 완전히 단절했다. 외교는 국민을 위한 수단 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이득

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외교안보정책은 실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외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외교의 출발점이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는 그의 시각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실용외교의 전형 을 보여준다.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과 '잡사니즘'이라는 정책 비전은, 단지 경제나 복지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 분야에서도 첨단기술 국제협력, 과학기반 경제안보 전략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AI, 반도체,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의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는 바로 이러한 외교의 실질적 성과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동맹과 안보정책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균형과 실용이라는 두 축을 견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되, 동맹이 우리 국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조정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 북러 군사 협력 등 복잡하게 얽힌 국제질서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감정이나 이념이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한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북한과의 현실

적 대화 가능성 모색은 모두 이 후보가 추구하는 외교 다변화와 균형외교의 한 단면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은 안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그는 근거 없는 평화 환상이나 무모한 대결주의를 모두 배격하며, 실질적 안보 위협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 해법을 제시한다. 남북관계는 언제나 감정과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긴장 완화와 국민 안심'을 목표로 한 냉철한 현실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구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외교는 혼자 외침이 아니라 타인과의 조율이다. 따라서 외교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단결시키고 정파를 초월해 국가적 이익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외교를 당리당락의 수단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과 국민 통합의 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강한 외교는 강한 내부 단결에서 비롯된다'는 오래된 진리의 재확인이다.

실용 국민외교 지원단이 보여준 지지는 단지 한 명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외의 복원을 위한 '전문가 공동체의 경고'로 이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외교적 자산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에서 다

시금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외교의 실패는 국민 삶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외교의 복원은 곧 민주주의의 복원이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권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은 단지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거나, 국제적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려는 실천적 비전이다. 국민 중심의 실용 외교, 초당적 외교, 그리고 과학기술과 안보의 융합 외교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력을 바탕으로 외교를 되찾아야 할 시간이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정책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교는 더 이상 소수 관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국민 체감형 외교'는 바로 그런 점에서 현실적이다. 외교는 안보를 넘어 일자리, 산업,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와 연동된다. 이제 외교는 단순히 국경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가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국제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주권 국가로, 당당한 민주공화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새만금 국가정원, 명분을 실현의 이정표로 바꾸자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의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총사업비 5,472억 원, 조성 면적 100만㎡에 달하는 이 대형 프로젝트는 2026년 착공,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새만금은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국가정원이자 서해안 생태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새만금의 지정학적 상징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강조하며 처음부터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순천만이나 태화강이 지방정원으로 승격된 전례와는 다른 방식이다. 물론 이는 정부 예산 확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성과 기반의 단계적 승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단순한 지방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개발의 상징이자 균형발전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연간 9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점을 들어 새만금 국가정원이 조성될 경우 3조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천3백여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단순한 기대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제성뿐만 아니라 생태적, 문화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새만금 국가정원은 단순한 녹지 조성사업이 아니라, 환경 회복과 탄소중립, 관광과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데 엮는 통합 프로젝트로 기

획해야 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우선, 100ha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간단치 않다. 새만금 지역은 산업과 농업용지 수요가 높은 곳으로, 정원 조성을 위한 용도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는 긴 시간과 세심한 조율을 요구한다. 더불어 인근에 추진 중인 새만금 수목원 사업과의 중복·혼선 우려도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 정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국가급 관광·문화 인프라로 기능하려면 이러한 공간 간 기능 분담과 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접근성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순천만국가정원이 KTX와 고속도로 등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춘 반면 새만금 주변은 여전히 교통망이 부족하다. 정원이 완공된다 해도 찾아오는 길이 불편하다면 관광객 유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원 조성과 동시에 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 계획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권과 지자체의 강한 추진력과 설득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북도는 산림청과 기재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명확한 사업 계획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새만금 국가정원이 국가 미래전략의 일환임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액션플랜과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다. 새만금 국가정원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관문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다. 현실의 제약 속에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책임과 의지가 지금 요구된다. 정책의 명분을 실현의 이정표로 바꿔야 할 때다.

오늘의시

벗에게 - 조국과 청춘 / 김남주

좋은 벗들은 이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네
살아 남은 이들도 잡혀
잔인한 벽 속에 갇혀있거나
지하의 물이 되어 숨죽여 흐르고
더러는 국경의 밤을 넘어
유령으로 떠돌기도 하고
그러나 동지, 잃지 말게
승리에 대한 신념을
지금은 시련을 참고

견디어야 할 때,
심신을 단련하게나
미래는 아름답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네
이별의 때가 왔네
자네가 보여준 용기를 가지고
자네가 두고 간
무기를 들고 나는 떠나네
자네가 몸소 행동으로
가르쳐준 말

시인 약력 :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검정고시를 거쳐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자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했다. 이 사건으로 1973년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전남대에서 제직당했다. 창작과 비평지에 '진혼가', '갯머리' 등 7편의 시를 발표했다. 1978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첫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등을 출간했다.

독자광장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게임인가 도박인가...명백한 범죄



도박이란 돈이나 재물 등 가치있는 것을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을 말하며 주사위, 마작, 화투, 트럼펫, 골패 등을 통한 도박도 있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한 스포츠 경기 승부 예측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레이싱 게임, 마리오 등 다양한 모바일 게임형식처럼 보이는 형태의 도박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갈수록 걸로 보기에 도박에 해당되는지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든 다양한 형태의 도박 유형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시대가 발전하면서 미디어 매체(휴대폰, 인터넷 등)에 접하게 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

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초(4~6학년),중,고 재학 청소년 약 390여만 명 중 13,3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진행한 학생중 4.3%가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상의 도박을 경험했던 청소년 중 19.1%가 6개월(3~8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시작하는 이유로는 '포래문화' 때문에 친구들과 불법 도박을 하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아져서, 개인의 금전적인 문제, 단순 호기심, 도박을 통해 얻는 스릴감 및 즉각적인 보상 등의 이유들이 있으며 이중 친구들과 하는 것을 보고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현재 청소년들이 도박

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된 청소년 중 일부는 지속적인 도박을 하고 있어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도박은 중독성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독성으로 인해 학업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도박을 통해 금전을 잃게 되면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의 돈에 손을 댈 수 있고, 학교폭력을 통해 또래 친구들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절도 및 사기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들의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많은 곳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도박은 게임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도박 자진 신고 접수를 받아 처벌보다는 선도와 회복에 중점을 두어 도박 중독 및 2차 범죄 예방,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1336)

와의 치료 연계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적인 측면에서 혹시나 내 아이가 갑자기 많은 용돈을 요구한다든지, 평소보다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 본다든지, 단 순히 보기에 파악하기 힘든 다양한 도박의 유형들을 눈여겨보아 도박을 하고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며 만약 발견을 한다면 언제든지 112 또는 117이나 1336 등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진안경찰서는 점차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도박 유형들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예방 교육, 학교 홈페이지 게시, 학부모님들을 위한 가정통신문 배부 등 청소년 양육에 힘써주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홍보를 통해 청소년 도박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안경찰서
김진수

문화재 열전



수성당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종교신앙, 제사터
-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 (격포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안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 |
|--------------------|--------------------|--------------------|
|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정재근 | 인쇄인 김은주 |
|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시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 부안지국 010-7247-3947 | 완주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 고창지국 010-2258-3734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 완주지국 010-3672-0308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626-6049 |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95회 남원 춘향제, 사상 최대 145만명 '발길'

전년보다 27만 더 방문...2년 연속 백만 돌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공연예술축제 제95회 남원 춘향제에 145만명이 다녀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2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객을 기록하는 등 춘향제가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축제로 화제성 뿐 만 아니라 역대급 흥행까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춘향제 방문객 공식 집계 결과 제95회 춘향제에 145만여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94회 춘향제 방문객 1,173,762명에 비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7만여명이 증가한 145만여명이 방문,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형 축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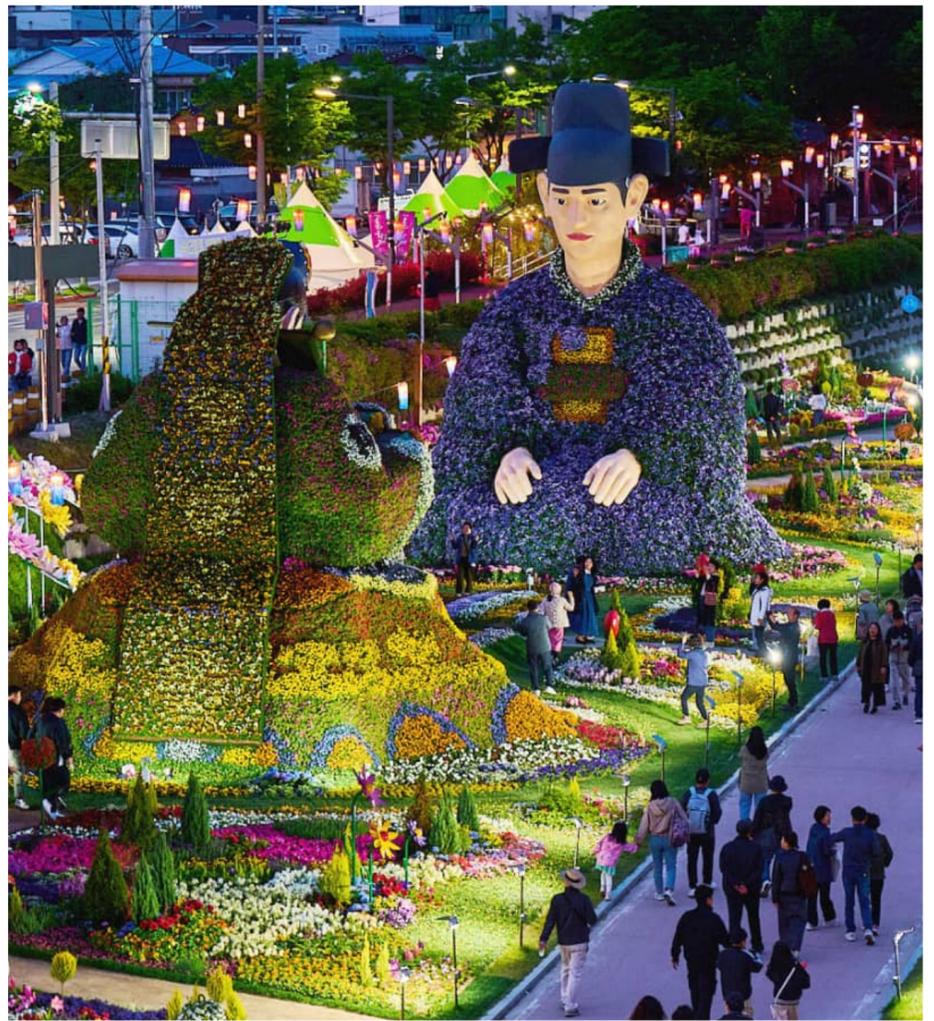
게다가 제95회 춘향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올해 춘향제 1인 평균 소비지출비용이 67,343원으로 전년 대비 2024년 1인 지출 평균 60,111원보다 7,232원 높아져 해마다 소비지출이 확대되는 등 축제로 인한 지역 경제 선순환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제95회 남원 춘향제의 성공요인에 대해 남원시는 △해마다 강화되는 춘향제 정체성, 남원시민 주도 축제 기획·운영 기획 △공간 활용 ·춘향제 핵심 프로그램 안착△막거리, 농산물판매, 동행세일페스타 등으로 관객들 만족도UP, 지역상생 선순환 견인 등에서 큰 효능을 얻었다고 전했다. 제95회 남원 춘향제의 성공포인트에 대해 돌아본다.

대한민국 최장수 축제 춘향제, 매년 해마다 '주제' 설정, 정체성 강화 & 남원 시민 축제메이커로서 프로그램 기획, 참여

제95회 남원 춘향제의 첫 번째 성공요인은 뭐니뭐니해도 오는 2030년에 100회를 맞이할 '춘향제'의 방향성을 놓고, 매년 전략적으로 정체성을 확립, 춘향제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원 춘향제는 지난해부터



제95회 남원 춘향제

F&B 총 매출 11억 3천만원 집계 '동행세일페스타'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시민 중심 프로그램·공간확대 호평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 첫 외국인 춘향 탄생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분기점을 맞아 다양한 국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를 표방하며 매년 주제를 설정, 축제를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 93회에는 '빛' 94회에는 '컬러' 95회에는 '소리' 등을 주제로 매년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올해는 소리의 고장이자 국악의 성지로 손꼽히는 남원의 특색을 살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소리와 기술이 융합된 △한국과 소리의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를 메인 테마로 10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을 구성, 7일간의 소리여행으로 꾸며졌다.

그로 인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 콘텐츠가 이번 춘향제에 가득 포진, 남원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남원시민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축제 메이커로서, 남원 춘향제를 돋보이게 하는 등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어 과거 대한민국 3대 대표 축제였던 춘향제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남원 시민 합창단'이 개막식에서 웅장한 합창으로 축제의 문을 열었고 폐막식에서도 다시 한번 감동적 무대를 통해 대미를 장식했다.

게다가 이번 춘향제에서는 '발광낭자 대동길놀이'와 같은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에 남원의 23개 읍면동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 흥겨운 댄스행렬로 관광객과 하나가 되는 진풍경을 자아내 그야말로, 4월간 남원의 문화적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 콘텐츠로 연일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효율적인 공간운영 통해 불거리와 체험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호평

무엇보다 올해 축제는 공간의 확장성을 통해 구역별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풍성한 축제로 치른 점도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작년부터 메인무대를 광한루원 내 안월정이 아닌 외부로 배치하면서 용이한 동선을 확보하며 편안한 공연 관람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축제 공간 또한 대폭 확장되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요전번에 조성된 꽃밭 경관은 춘향제 랜드마크로 연일 주목 받았고, 유채꽃밭은 동선을 자연스럽게 넓혀 관람객의 이동을 유도하며 풍성한 불거리를 제공했다.

남원 춘향제 글로벌춘향선발대회 등

핵심프로그램 더 진화, 춘향제에서 배출한 춘향 앰버서더 공식화 등 춘향제 자산 더공공히

갈수록 남원 춘향제 핵심 프로그램이 더 진화하고 있는 점도 춘향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외국인 춘향을 처음 탄생시켜 춘향제의 국제적 품격을 높였다.

그렇게 올해 춘향선발대회에서는 춘향 진,선,미,정,속,현, 글로벌 앰버서더까지 총 9명의 춘향이 선정됐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역대 춘향을 '춘향 앰버서더'로 공식화하는 등 춘향제에서 배출된 이들이 K-문화자산화함으로 '춘향의 가치와 춘향다움의 지속성'을 재정립한 바 있다.

올해도 먹거리, 농산물판매, 춘향세일페스타 등 호평, 관객들 만족도 UP

한편 올해 춘향제에서는 체계적으로 정

비된 먹거리 콘텐츠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먼저 4개 권역으로 분산 배치된 푸드존은 관람객의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고, 더본코리아와 협업한 F&B존은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지역민과 관광객을 사로잡은 바 있다. 이에 춘향제 F&B총 매출이 약 11억3천만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 축제의 가능성을 실질적인 수치로 입증시켰다.

이밖에도 백화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원푸드' 체험과 직거래 장터는 관광객들의 높은 구매와 참여를 이끌었고, 지역 농가와 상인의 만족도 역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제기간 동안 남원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 점포 등을 방문 시 할인된 가격과 이벤트 등이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중소벤처기업부 2025 동행축제와 함께한 '춘향 세일 페스타'(동행세일페스타)도 이어져, 소상공인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실제로 올해 '동행세일페스타'에는 총 128개 점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40

개)에 비해 세 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할인 제공과 추가 서비스, 친절한 응대를 통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내 즐거운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은 물론, 축제 기간 다소 외면받을 수 있는 시내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이렇게 제95회 춘향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장장 7일간 축제의 외연과 내연을 다채롭게 확장시키며, 호평 속에 폐막했다.

축제팀 관계자는 "2년 연속 백만명이상이 방문하고 특히 올해 145만 명이라는 유례없는 관람객 수를 기록한 춘향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을 아우르는 공연예술축제로서 앞으로 동시대 속에 더 진화·발전할 것"이라며 "올해 결과에 힘입어 제96회 춘향제도 100회를 향한 원년의 해로, 더욱 정교하고 풍성한 콘텐츠로 찾아볼 예정이니 남원 춘향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